

안경환의 법과 문화



2014, 갑오년의 정치와 예술

“나라가 불행하면 시인이 행복하다”(國家不幸 詩人幸)라는 옛말이 있다. 이른바 ‘난세’가 예술의 황금기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분노와 소외, 절망과 한탄의 산물이다. 불의의 질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미적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의 본령이다.

또 한해가 바뀌었다. 으레 그러하듯이 새해 벽두에는 온갖 수사가 난무한다. 이번엔 대통령이 내는 구호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천만번 타당한 명제이니 감히 누가 토를 달 수 있느냐? 문제는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는 권한을 가지는가이다. 정권인가? 아니면 국민인가?

“달력은 권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고대에 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태양력 대신 태음력을 쓴 적이 있다. 2014년, 갑오년 원단에 청와대가 내거는 달력에는 국민의 일상을 섬길 어떤 세부계획이 적혀 있을까? 교수신문이 내놓은 지난 해 영신(迎新)의 염은 ‘제국포신’(除舊布新)이었다. 묵은 것을 떨치고 새 것을 펼쳐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건네는 덕담이었다.

그런데 연말의 결산 평가는 병엄했다. ‘도행역시(倒行逆施)’. “그릇된 길을 고집하고, 시대착오적인 악행을 도모했다.” 이웃나라

중국 언론도 이 문구를 인용하여 한국정치를 비판했다고 한다.

2014년, 교수신문은 다시 새해의 제언을 내걸었다. ‘전미개오(轉迷開悟)’. “속입과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모두가 곱씹을 경구다. 더더구나 갑오년이 아닌가, 60년 단위 회돌이가 시작하는 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전래의 관념이 새삼 비장하다.

두 환력(還曆)전 갑오 1894년, 그해 한반도에 불어 닥친 경장(更張)의 회오리는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 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해 새 세상을 갈구하던 열연, 동학의 뿌리가 어디였는가? 언제부터가 ‘남도’라던 으레 전라도를 지칭하게 되었다. 문화도, 예술도 남도가 아니면 진품도 명품도 아니다.

호남의 정서가 몸에 익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작품도 쓸 수가 없었다. 1980년 광주의 불행이 예술적 분노의 영감에 진한 기름을 부었다. 이때금씩 되묻는다. 그때 나는,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라고. 원로 역사학자 지명관은 “광주 이후 살아 있는 것이 죄악이다”이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그때 불의의 권력은 ‘빨갱이’와 ‘전라도’를 함께 묶어 남도 시민을 ‘역도’로 몰았다.

미국의 타임지와 뉴스위크지는 그해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참혹한 사건의 최상위에 광주를 올렸다. 미국의 간접적 목인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난이 따랐다.

그러나 역사는 영원한 가식을 용납하지 않는 법, 시민을 확실한 원용은 처벌받았고 ‘폭도’는 잃은 목숨 대신 민주시민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때 그 일은 빨갱이의 짓도,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감정도 아니라, 거룩한 민주시민의 봉기였다는 바른 역사가 정립되었다.

“광주일고는 경북고에 져야 돼, 그것이 포에틱 저스티야.”라던 황지우 시인의 자조도 동매한 잔혹의 세월, 한낱 푸념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렇게 철썩같이 믿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언제부터인가 광주의 옛 상처가 다시 아리고, 오래 전에 아문 딱지가 쓰러다. ‘중북, 좌파’의 낙인을 치켜든 권력이 발호한다. 이 무슨 변고인가!

영화 ‘변호인’이 천지를 울린다. 허구와 사실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영화다. 한 가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그때 그 무리한들은 광주와 부산·마산의 양심을 갈라놓고자 획책했다. 정치야 지역 따라 쪼개지더라도 인간의 양심마저 갈라질 수 없는 법이다.

송강호의 대사가 본질을 두드린다. “이러든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란 국민이다.” 지역을 가르는 비상식을 쫓게치고 국가가 모든 국민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겠는가?

권력의 속성은 비열하고 잔인하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라. 러시아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박정희 군사독재가 사라진 지 오래인 이 시점에도 여전히 작품이 읽히는 이유가 있다.

남도, 빛고을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높낮이를 거부하는 무등산의 늪연한 기쁨과 사람이 자랑스럽다. 남도의 시인, 호남의 예술인은 상식을, 인간을, 정의를 외칠 권리와 책무가 있다.

오래도록 내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여인의 여향에 이용악의 ‘전라도 가시나’ 구절이 되살아난다. “알록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가시내야, 나의 가슴 그늘진 오솔길을 헤매지, 네 두민간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천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렀을 것인데”

오랜 세월 슬한 상처를 떨치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는 광주, 그 사랑의 땅에 내 작은 사랑을 보낸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장〉

종교칼럼



일선 장흥 보림사 주지

전미개오(轉迷開悟)

다. 그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이 잘살려는 이기심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는 삿된 생각입니다. 또한 스스로 복을 짓지 않고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착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마치 웅맹한 장수가 명마를 타고 단숨에 적진을 돌파하여 난리를 평정하듯이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갑오년 새해를 맞는 의미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축성도를 제도하기 위해서 말의 모양을 하고 분노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호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두관음은 큰 입으로 어둡고 우울한 나쁜 습관을 먹으며 태양으로 변해 중생계의 어둠을 없애고 악한 무리 속에 고뇌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버립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된 ‘전미개오(轉迷開悟)’는 ‘자기 안의 어둡고 우울한 중생심의 어리석음을 굴러서 대남처럼 둥글고 밝은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구하는 바를 따라서 끝없이 밖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이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과 깨달음을 풀이 아니지만 마음 밖에서 구하게 되면 현실과 점점 멀어지고 노력한 만큼 만족하지 못하여 늘 불안하고 안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몸에서 삿된 감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밖으로 달리는 생각이 멈추고 어느덧 가슴에는 뿌듯함이 고일 것입니다.

옛날 어른신들은 늘 생각을 잘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돌아온 곳을 먼저 밟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생각을 일으키는 높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스트레스는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병으로 생각은 불의 성질이 있어서 늘 머리가 뜨겁거나 심

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과 싸우게 되면 아무리 웅맹스런 장군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처럼 가족관계가 행복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쁜 생각들을 잘 떨었습니다. 또한 친구간의 의리와 남녀간의 지극한 사랑을 위하여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돌렸습니다.

수행의 핵심은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싸우지 말고 끝없이 돌리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지눌스님은 수심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달음이 더덜까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미개오의 참된 뜻입니다. 모든 생각은 본래 완전한 영성에서 나오지만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망각해버려 집을 나온 미아처럼 해매게 되는데 이것이 중생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입니다.

겨울 숲은 참으로 정정하고 의젓합니다. 생각의 나무는 숲과 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社說

광주시 2순환로 항소심 승소 당연지사다

광주시가 ‘월세 먹는 하마’로 통하던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km)의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1구간 매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광주시의 재정 경감은 물론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유지한 전국의 14개 자치단체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9일 광주 순환도로투자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실시협약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똑같이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비율을 28.7%에서 6.94%까지 낮춰 완전 자본 잠식상태에 빠졌다”며 자본구조를 원상 회복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

다. 1심에 이은 항소심 승소 판결은 막대한 시 예산의 출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나 환영하는 바다. 대주주인 맥쿼리가 자본구조를 원상 회복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순환도로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성사될 경우 민간투자자가 운영기로 한 2028년까지 모두 5000억 원 가량의 재정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맥쿼리는 두 차례 자본구조를 인의로 변경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10%로 높여 6년 간 이자료만 1947억 원을 받아냈고, 적자를 이유로 2012년까지 뜯어낸 보조금만도 1190억 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맥쿼리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 1구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2200억 원의 거액이 드는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재추진은 ‘지방 죽이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MB정부가 추진하다 지방경제를 말살한다는 여론에 밀려 포기한 정책을 기어코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저조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 8일 “수도권 규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경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광주시가 유치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11건(4580억 원)으로, 전년도 24건(6588억 원)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실무자 견수도 3건으

로, 전년 5건보다 2건이나 줄었다. 국내기업 유치 실적도 전년(98건·6969억 원)과 비교, 32건이나 감소한 66건(3018억 원)에 머물렀다. 투자금액도 지난해 유치액인 3018억원보다 3951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투자유치 실적 급감은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공통된 현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악화일로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투자 기업들이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 알짜기업은 수도권 이전 기회를 항상 엿볼 것이고, 신규 투자가 어김없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비수도권 자치체들의 하나 된 목소리다. 지방이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함은 불문해 반 토막이 났다. 실무자 견수도 3건으

無等鼓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베치는 그 어떤 배우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외모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무엇보다 그의 분위기가 있는 중저음은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다. 영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 접한 그는 마성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컴버베치를 세계인들의 히로인으로 만든 건 영국 작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가 원작인 BBC ‘셜록’ 시리즈다.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컴버베치의 셉록은 빅토리아 시대를 박차고 21세기, 영국 런던으

셜록홈즈

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아이폰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질주한다. 자칭타칭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인 그의 영국식 발음과 중저음, 속사포 같은 대사는 셉록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다.

‘빈 영구차(The Empty Hearse)’, ‘세 사람(The Sign of Three)’에 이어 2년여 만에 ‘셜록3-마지막 서약(His Last Vow)’이 시청자를 찾아왔다. 지난 1일 영국 첫 방영 당시 1000만 명이 시청했고, 지난 5일 KBS 2TV에서 방송을 시작하며 국내에서도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최근 ‘셜록키언’(셜록 홈즈의 팬)들 에게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미국에서 ‘셜록 홈즈’ 저작권이 풀리면서 다양한 셉록 홈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한국과 영국에서는 사후 70년간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에 따라 지난 2000년 저작권이 만료됐다. 반면 미국은 1923년 이후 저작물을 95년 간 보호해 주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메슬리 클라인어가 코난 도일 재단을 상대로 제

기한 저작권 보호 만료 확인 소송에서 “셜록 홈즈의 등장 인물은 공공자산이다. 어떤 작가든 재단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홈즈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작가들이 홈즈 뿐 아니라 단편 존 왓슨 박사, 영원한 라이벌 제임스 모리아티 교수 등도 자유롭게 등장시켜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컴버베치의 ‘셜록’을 능가하는 매력적인 명탐정이 탄생할까?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기고

진정한 친절



유순남 수필가

람에 나도 엄격하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교육받은 내용들을 상기해보니 빠뜨린 말이 많았다. 잠시 후 한 행정사가 자리에 돌아왔다. 난 그녀에게 처음으로 내 이름을 알리지 않은 것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끝마무리에 “더 궁금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를 빠뜨려 아쉽다는 말을 했다. 전화 친절도는 멘트 하나하나에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녀는 우리 학교 친절도 1학기보다 더 높은 공문을 읽었다고 알려졌다. 다행이었다.

요즘 일선 학교 교사들은 외부전화 받기를 꺼린다. 친절도 조사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가 좋을 경우엔 개인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학교는 성과급이 올라가기도 한다. 아무튼 교사는 의무적으로 전화친절교육을 받아야하는 매우 중요

한 일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나는 이런 형식적인 전화친절보다는 실용적인 전화친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가끔 있다. 어느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첫인사가 너무 길어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부분은 긴 말을 다 하려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너무 빨리 한다. 별 필요도 없는 말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간단히 회사명 정도만 알리고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진정한 친절은 없고, 겉치레로만 친절한 불친절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가끔씩 접하게 된다. 며칠 전 상무지구에 있는 모 약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의사의 처방전을 주고 잠시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흰 가운을 입은 아가씨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1, 2, 3으로 적힌 5개의 약봉지를 꺼내다가 자칫 목에 걸린 채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하더니 “아시겠죠?” 했다. 물론 그것을 이

해 못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숫자를 보는 순간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닌 기계취급을 받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다. 그리고 “어느 곳보다 친절해야할 의료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분명 고객 중심이 아니라 약국 편의주의다. 이렇게 자기 편리한 것만 생각했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쓰기가 힘들면 첫 글자만 따서 ‘아, 점, 저’라고만 써도 될 것이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더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시정해야 좋을 것 같다.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입으로만 하는 친절 따위보다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상대방 마음을 거슬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절일 것이다.

질식 위험 높은 블라인드 줄 안전조치 절실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0%가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서너살배기 아이 키 높이 정도에 목직한 압력식 전기밥통이 놓여져 있는데(이건 밥을 짓는 엄마 입장에서 주방 일하기 가장 적당한 높이임) 아무도 없는 사이에 아기가 밥통의 전깃줄을 잡아 당겨 이 밥통이 떨어지면서 아기의 머리를 가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찬가지 예로 거실에 40~50cm 높이에

있는 TV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극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기가 그 인형이 실제 눈앞에 있는 줄 알고 TV를 끌어안고 잡아당기다가 TV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식의 안전사고는 생각이 않은 곳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위험한 어

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블라인드 줄이다.

미국에서는 작년엔 창문을 가리는 블라인드 제품 무려 5000만 개가 리콜조치됐는데 이유는 아기를 때문이었다. 즉 블라인드의 줄에 목이 걸려 질식사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미국에선 이런 아기들의 질식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창문을 가리는데 사용하는 블라인드는 창문쪽으로 올라간 아이가 줄을 당기며 줄다가 자칫 목에 걸린 채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창문

근처에서 아기가 볼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 줄에 걸리면 아이는 순간적으로 질식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줄을 당겨 견어올리는 로만 스타일 또는 롤업스타일의 블라인드 5000만 개를 리콜조치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를 남의 나라 일로만 볼게 아니라 반드시 안전조치를 한 제품을 팔도록 하고, 이미 팔려나가 가정에 설치한 경우엔 ▲기중심·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 화 1부 2200-66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 화 서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2부 2200-65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여론대체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시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